

1992. 01. 18
[광주=박화강 기자] 광주시와 전남도는 일제가 국민학생까지 근로정신대로 징발해간 사실이 밝혀진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낮엔 重노동... 밤엔 "노리개"

생존자들이 증언하는 「지옥의挺身隊」

15일 오후 한류정신대문 제대참형회 사무실에서 당시 참수했던 생환자를 폭로한 盧清子씨(72·忠南大川市)는 이중에서도 가장 비참했던 '종노리개'인 盧씨는 17세 때인 37년 大田부근의 한 고개를 지나다 헌병들에게 납치되다시피 끌려가 3년간의 위안부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진짜처럼」 지붕도 없는 화물열차에 싣려 사흘을



盧清子씨

있을라 밤하늘에 있는挺身隊의 실상이 사회적인 파장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挺身隊에 강제동원돼 참수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이 속속 증언에 나서고 있다. 모두 2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挺身隊은 크게 군수물자와 함께 동원돼 강제노역을 했던 「도토정신대」와 최전선에서 日本軍의 「노리개」였던 「종노리개」로 구분된다.

이름대신 번호로 불리며 밤새 시달려 먹을것 제대로 안취 생미나리 뜯어야 해방후 과거 숨겨 살다 自殺한 사람도 증언 1992. 1. 16

안 발이란 이동하와도 착한 것이 이름도 모르는데 中國軍부 한 도시의 日本軍부대였어요. 盧씨는 「마구간과도 같은 험한 창고에 열기 설치만 들어온 방에서 40여명의 내내 조선회녀들과 함께 생활하게 됐는데 부대살판이었던 한 발자국도 나갈수 없었던 상공인들이 바라다보던 땅이란 생각조차 할 수



黃錦周씨

신 징용을 자청했다가 中國吉林省 본지에서 1년 간 종군위안부로 있

있던 黃錦周씨(70·서울 新林洞)는 「술에 취한 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팔을 지질이며 팔려나간 인들에게 매를 맞지 않게 야만했다」며 「나중에는 사람이 모자란 자살한 자를 끌러가 위안부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당시 참상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盧씨도 3년간만 한번도 돌아간 적은 발이 본 적이 없었으며 이름대신 번호로만 불려 누가 누구지도 모른 채 지내야만 했었다」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로보류」의 기치 아래 군수물자에 강제징용됐



梁春씨

서를 德壽고등소학교에 다니다 14세 때인 44년 근로정신대에 착출돼 日本 富山縣에 있는 화공기부품공장에서 일했던 梁春씨(61·서울종로1洞)는 「일본으로 갔을 때 매일 4시 30분에 일어나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렸었다」며 「물론 고사하고 면목이 부족해 공장생활을 떠날 여생미나리를 들먹여 먹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전남도청 근무 박 천 도씨 1992. 01. 18



학생이었다. 그때는 초혼을 하던 시절이고 여학생도 많지 않아 유력인사의 자녀를 뺀 모든 한 국인 여학생이 대상이 됐다. 나주보통학교의 경우 선생들

“고 돈도 번다”속여 유인 대상 교장이 직접 골라

서 정신대에 열 이 졸업생연명부를 만들어 올리면 군청의 지시를 받은 마사키 교장이 선정했다.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갔나. = 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철부지 여학생들에게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고교에서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속여 유인했다. 이 졸업생연명부를 만들 어울리면 군청의 지시를 받은 마사키 교장이 선정했다.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갔나. = 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철부지 여학생들에게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고교에서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속여 유인했다. 학년이 정도였는데 징발되었으니 겨간 인원을 갖는가. 에서 일시키기 문제가 없는 1 학교 졸업반 여

<나주=안관옥 기자>